

월/요/광/장

장병완



일반적으로 특별한 것은 좋고 우수하며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설령 '보통'보다는 '특별한' 것이, 일반고교보다는 특목고교가, 일반 경제지역보다는 특별 경제지역이 더 선호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별회계는 사업과 재원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더 선호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었는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약 5조원

그런데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입법되면서 실질적인 국비 예산 확보의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주시로 바뀌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법 당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지역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데 대해 지금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특별한 것보다 일반적인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

다음으로 외면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인 예를 들어보자. 감세의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우

수밖에 없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이 자기에게 돌아올 결과를 생각지 않고 막연하게 세금을 인하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쓸쓸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대전 등 4개 광역 시·도에서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 투표의 경우는 어떤 사례에 해당될까. 투표율은 모두 20%를 밑돌아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불과 네 곳의 교육감을 뽑는데 들어간 선거비용은 무려 7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우리 자녀를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었어야 할 국민 세금 중에서 이 금액만큼 덜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깨닫게 된다면 과거의 선출 방식보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 더 부합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인정해 줄까?

결론은 보기에 또는 부분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는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려 있다. 대의 환경의 악화로 국민 삶이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각종 제도나 정책들을 꼼꼼히 따져서 진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정책 당국자들에게 기대해 본다.

〈호남대 총장·전 기획예산처장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것,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그 사업을 지키고 성공시키려는 투철한 의식으로 무장된 주체가 필수적이며 이 사업의 경우 국비 예산 확보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역사문화중심도시, 전통문화중심도시 등 이 사업과 유사한 다른 사업의 지원 소요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확보되는 몫이 최대화되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일을 하고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5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각종 공제 혜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세금 인하나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도 세금 인하나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정부 지출 내역을 보면 소득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감세로 인해 정부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을 삭감할

시설

일보다 의정비 인상에 신경쓴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의정비만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0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 제출한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13%, 기초의원은 36%나 인상됐다.

반면 지난해 동안 광역·지방의원의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는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열불에는 맘이 없고 잤밤에만 신경 쓴 셈이다.

의정비는 올해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237개 의회가 인상했다. 광역의원들의 1인 평균 의정비는 5천284만원으로 전년보다 13%, 기초의원은 3천766만원으로 36%가 인상된 것이다. 나주시의회 등 38개 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자체 수입으로 의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함에도 의정비는 평균 34% 인상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조례 발의는 지난해 한해 동안 광역의원 1인 평균 0.59

건, 기초의원은 0.7건에 불과했다. 특히 신안, 보성, 영암군 등 8개 기초 의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시선은 굵지 않다. 정당 공천제에 따른 정치 예측화, 다수당의 횡포와 의정당 탄압 선출, 이권 개입, 도덕적 해이 등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최근 의정비 가이드 라인 제시, 지방의원 결직 대상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을까. 중앙정부 개입이 지방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이 이는 자업자득이다.

지방의회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난 17년 동안 불거진 문제점의 대부분은 지방의회 내부에서 비롯됐다. 지방의회 스스로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자질 시비 및 의정비 과다 인상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박태환 올림픽 수영 제패 국민적 쾌거다

'마린 보이' 박태환이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박태환은 베이징을 립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기적을 이뤄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수영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수영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첫 출전한 이후 44년동안 번방에 머물러왔다. 아시아 대회에서는 몇차례 금메달을 따지만 올림픽에선 결승에 진출한 것이 최고의 성적이었다. 박태환을 '국민의 영웅'이라 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

박태환의 올림픽 제패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쾌거다. 세계 수영은 미국과 호주, 유럽 등 서양인의 독무대였다. 체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동양인이 올림픽 자유형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적은 몇 차례 있지만 우승한 것은 최초라고 한다. 박태환이 동양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것이다.

박태환은 지난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400m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우승,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제패이자 동양인 남자 첫 자유형 우승이란 기록을 세운 것이다. 박태환은 세계선수권 400m에 이어 올림픽까지 제패함으로써 이 부문 세계 1인자로 우뚝 섰다.

나라 안팎의 사정은 말이 아니다. 정치는 '식물국화'에서 드러나듯 표류하고 있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보·핵 갈등 등 국민분열은 심해졌다. 박태환의 쾌거는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값진 선물도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이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나 피겨의 김연아 등도 국제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제 2, 제 3의 박태환이 계속 나와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기를 기대한다.

법조칼럼

김정완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변호사의 변론이나 수임료에 대한 의뢰인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를 방영한 바 있다. 특히 법률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어느 여자변호사에 관한 일화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많은 관심을 촉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불성실한 변론이나 변호사 수임료 문제에 대해 많은 제보와 관련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변호사 수임료 문제나 불성실한 변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종종 취급한 적이 있고, 변호사가 연루된 여타 사건에 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 소송의 난이도나 소송기간 등 수임료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변호사 수임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위 규칙대로라면 일정금액 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현재 변호사 보수로 약정하는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더 높은 수임료 약정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몇몇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단상

대해서도 가끔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감출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성찰 대신 불성실하고 돈만 아는 부정적인 인식만이 팽배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스러움도 갖게 된다.

변호사 보수만큼 받지 못하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요즘 현실이기도 하다. 어쩔거나 법률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로서 변호사 스스로 의지를 갖고 적극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변호사협회 차원의 자정노력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TV프로그램에서 언급된 불성실한 변론 문제는 변호사 개개인의 자질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자성과 함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송구조상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어쩔면 현재의 소송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변호사의 변론이나 보수에 대한 시시비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안마다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급하더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여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품을 다 파는 수고로움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변호사〉

다만,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 규칙은 소송으로써 청구

의뢰인을 포함한 법률소비자들의 불만과 질타에 대해 무엇보다도 변호사 스스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뼈아프게 반성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은행 업무시간 1시간 단축 반대

은행 업무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이 시간에 ATM 등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업무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는다.

연장근무를 바라는 시민들은 의외로 많다. 그런데도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창구 업무시간을 단축하거나 1시간 일찍 당겨서 시작해 1시간 일찍 끝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업무 마감시간을 오후 4시30분에서 3시30분으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고 자신을 편袒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려는 방침에 반대한다.

은행 업무시간 내에 쉴 수 없는 서민들이나 대학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우수 고객이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만 서민이나 대학생 등은 대부분 우수 고객에 끼지 못해 수수료를 물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의

▲김낙형·광주시 북구 양과동

기고

김세곤



최근 부임 인사차 전남도청을 방문했다. 청사를 들어가면서 문 위에 '이난영문'이라고 적혀 있는 글씨를 보았다.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여가수 이난영을 이 문에서 만나게 되다니... 몇 년 전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는데.

살펴보니 다른 출입구도 김영랑, 허백련, 오지호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서정시인 김영랑과 남창호의 나가 허백련, 서양화가 오지호를 문 앞에서 만나게 되니 정말 감회

은 문인, 미술가, 가수, 국악인, 정치가, 유학자 그리고 국문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인물들 중 김연수, 김중익 등 몇 사람은 필자가 과문한 탓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다. 그래서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남도 인물 소개가 되어 있을 것 같아 홈페이지를 뒤졌으나 청사에 명명된 남도 인물들의 약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전남도가 청사의 주요공간에 남도 인물 명칭을 부여했듯이 좀 더 혁신적인 발상을 하였으면 한다. 남도 인물에 대

전남도의 남도인물 예찬

가 깊었다. 비단, 문만이 아니었다. 1층 로비는 '윤선도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사를 올라가면서 안내판을 보니 '장보고 전망대', '김대중 강당', '황현 교육장', '왕인실', '정약용 실', '서재필실', '정철실', '송순실', '심청실', '김중익실' 등 여러 실, '송만갑 방', '김연수방', '홍길동 단련장', '강한 지식정보센터' 등 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들의 이름이 여러 군데 붙여져 있었다.

한 간단한 약력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청사 현관에 비치하고 방문객에게 제공하면 좋겠다.

평소 남도 인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자로서는 전남도의 이러한 남도 인물 예찬은 창의적 발상으로 매우 신선하다. 남도의 역사와 문화와 인물을 사랑할 줄 아는 멋진 행보이다. 도청 청사에 이름 붙여진 남도 인물

한 간단한 약력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청사 현관에 비치하고 방문객에게 제공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산 윤선도의 경우는 해남의 녹우당과 금해동 그리고 완도의 보길도를 소개하고, 송강 정철이나 면앙정 송순의 경우는 담양의 송강정, 면앙정, 식영정, 소쇄원, 가사문학관 등 가사문학 유적지를 소개하는 인물 기행집을 만들면 남도문화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욕심을 낸다면 전남도의 남도 인물 예찬 활동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자체에도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나친 선행학습, 청소년 인격형성 기회 빼앗아

오랫동안 교육분야 연구와 관심을 가져왔다. 요즘 박학을 맞아 선행학습들을 많이 시키고 있다. 특목고를 보내겠다는 욕심에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까지 선행학습 열풍이다.

또 하나 문제는 맹목적으로 학원의 관리를 받다 보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지나치게 학원에 의존하다 보면 성적은 오르겠지만 인생을 개척하고 헤쳐나갈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잘만 하면 작정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과도한 선행 학습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서울지역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선행학습을 하고도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고 답한 학생이 33%나 됐다고 한다. 이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부모의 강권에 의해 학원에 의존, 공부하다보니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유병화·광주시 북구 일곡동

無等鼓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태평양. 적도를 기준으로 태평양의 직경은 1만6천km, 북극의 베링해에서 남극까지 남북의 길이는 1만4천km에 이른다. 태평양의 섬은 2만5천개. 태평양이와 전 세계 섬을 합친 수보다 많다.

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난사군도를 놓고 영토분쟁중이며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몰두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처럼 광대하다. 지도로 본 태평양은 어느 나라의 주권도 절대적으로 미치지 않는 거대한 공해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0해리를 영해로 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시대가 되면서 태평양은 열강들의 바다 경계 국가로 인해 공해가 사라진 상태다. 태평양은 이름처럼 '태평'

명나라 영락제 시대 실력자 정화(鄭和)는 대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항해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의 대항해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2005년 중국은 정화화대 세계 진출 6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치렀다. '문명을 전하고, 세계로 문을 열어, 평화와 발전을 도모한다'(傳承文明 走向世界 和平發展)는 당시 행사 구호가 중국

바다 쟁탈전



당시 행사 구호가 중국

세계는 지금 바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이 마라도 서남 쪽에 있는 우리 땅 이어도를 중국 이름 '수엔자오(蘇承礁)'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중화 부흥을 외치고 있는 중국의 영토 욕심이 지나치다. /주승호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